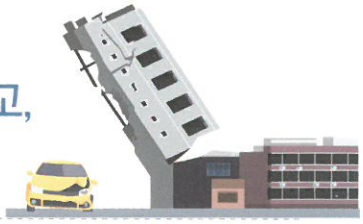
Q1 건축물 '철거'와 '해체'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전적 의미로 철거공사는 건물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우는 공사를 말하고, 해체공사는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춰진 부품 따위를 풀어 흩어놓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철거'는 '해체'로 명문화되었는데요, "해체"의 정의로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라는 용어는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해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건축물 해체로 인한 사고는 얼마나 발생했고,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체 및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재해는 54건이고, 사망자수도 61명이나 됩니다. 특히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재개발을 위해 해체 중인 건물이 도로를 향해 붕괴되면서,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전국의 건축물 해체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는데요, 전국 210개 현장 중 73개 현장에서 15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지금까지 해체 공사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